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일시 (인터넷, 지면)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3. 4. 21.(금)

러시아 어선화재, 러시아 선원 21명 구조

- 4. 21. 새벽 동해상 칼탄호 선원 21명 구조, 4명 실종자 총력 수색 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21일(금) 새벽 동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KALTAN, 러시아 국적, 769톤)에서 러시아 선원 21명을 구조하고 실종된 4명은 총력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일 00시 43분경 울산시 울주군 고리 남동방 28해리 해상에서 러시아 어선으로부터 구조신호(EPIRB, 위성조난신호)를 수신하고, 해군, 해경 함정과 민간선박 20척, 공군·해경 항공기 2대를 사고 현장에 급파하였다.

사고해역 인근을 항해 중이던 유명2호(8.55톤)가 사고 현장에 01시 50경에 먼저 도착하여 사고 선박에서 구명뗏목을 타고 탈출하여 해상 표류 중인 선원 21명을 구조하였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선원 4명에 대해서는 공군의 조명탄 투하 지원 하에 수색세력이 주변 해상을 집중 수색 중이나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실종된 선원 수색을 위해 일본 해상보안청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해경 함정(1501함)이 02시 00경에 사고현장에 도착, 화재진압을 시작하여 02시 24분경 큰불은 잡았으나 사고 해상기상의 악화로 진화를 완료하지 못한 채 07시 10분경 사고 선박을 울산항으로 예인을 시작하여 12시 37분에 울산항(용연2부두)에 접안하였다.

구조된 선원 21명 중 19명*은 해경정(130정)을 타고 09시 35분 울산항에 안전하게 입항하였고, 나머지 2명(선장, 기관장)은 사고 선박 입항 후 화재 진압과 수색 지원을 위해 해경정에 안전하게 탑승해 있다.

* 구조 선원 중 2명이 경미한 화상을 입었으나 나머지 17명 선원은 건강한 상태

해경청과 소방청은 사고 선박이 울산항에 입항하는 대로 화재진압을 완료하고 구조대원을 투입하여 선내 수색을 통해 실종자가 선내에 남아 있는지 여부를 정밀 수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사고해역에 기상이 악화되어 난항을 겪고 있으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실종자에 대한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구조된 선원이 안정을 찾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민중 (044-200-5850)
		담당자	서기관	황정웅 (044-200-589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